

한국축구대표팀 카타르 훈련장 가보니

‘잔디 좋고, 보안은 철통’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  
팀 숙소와 차로 10분 거리  
월드컵 기간 동안 담금질

역대 세 번째 월드컵 16강에 도전하는 벤투호가 현지 훈련장에서 처음 발을 뒀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오전 카타르 도하에 입성해 숙소에서 휴식 후 오후 5시부터 한 시간가량 첫 훈련을 소화했다. 대표팀이 첫발을 뒀던 곳은 카타르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이다. 회복으로 첫 훈련을 마친 대표팀은 2022 카타르월드컵 기간 이곳에서 담금질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H조 3경기를 모두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서 치르는 한국은 대회 규정에 따라 경기 전 한 번만 잔디를 밟아볼 수 있다. 카타르월드컵은 경기장이 8곳으로 적어 잔디 관리 차원에서 각국의 사전 점검 회수를 제한했다. 그로 인해 벤투호는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거의 모든 전술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벤투 감독이 대회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이곳의 시설은 훈련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대표팀 숙소인 도하 시내의 르메르디안 호텔과 약 10km 떨어져 차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 잔디 상태는 흙 잡을 때가 없고 훈련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 에글라 트레이닝센터에서 첫 훈련을 앞두고 있다.

장 주위를 나무가 둘러싸고 있어 염암이 어렵다. 공격수 황의조(울림파야코스)는 “(훈련장이) 굉장히 좋다.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모든 게 잘 준비돼 있다. 선수들도 잘 알고 있고, 축구에만 집중해서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만족감을 보였다. 한국 대표팀 훈련장 옆엔 튀니지 축구대표팀도 베이스캠프를 마련했다. 튀니지는 D조에 속해 있다.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다수의 보안 요원을 배치해 출입도 자유롭지 않다. 취재진도 출입증과 짐 검사를 거쳐야만 알에글라 훈련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게다가 선수단이 도착하기 전엔 훈련장을 둘러볼 수도 없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숙소와 훈련장 모두 보안이 상당히 엄격하다. 대표팀 스태프도 출입증이 없으면 오갈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37대 전라북도 출마선언



“재선에 도전합니다” 민선 초대 전북도체육회장인 정강선 회장이 15일 전북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15일 치러지는 민선2기이자 제37대 전북체육회장 재선에 도전한다며 변화와 혁신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전북체육을 강조했다.

배드민턴 혼합복식 우승 ‘금지탑’

전북은행 윤민아, 광주은행 최현범과 팀 이뤄 전국실업대항서 1위

전북은행 배드민턴팀 윤민아가 전국 대회에서 혼합복식 우승의 금지탑을 쌓았다. 최근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실업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전북은행 윤민아는 광주은행 최현범과 팀을 이뤄 혼합복식 경기에 출전했다. 1회전을 부진승으로 올라간 윤민아-최현범은 2회전에서 만난 이상민(요넥스)-박세은조(KGC인삼공사)를 2대1로 승리한 뒤 3회전에 진출했다. 기세를 몰아 3회전도 2대0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 이들은 삼성생명의 박경훈-김유정조를 물리쳐며 우승을 차지했다. 또 전북은행의 송현주는 이 대회 여자단식 부문에서 3위의 성과를 냈다. /김경수 기자



최현범과 윤민아(사진 오른쪽).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 전국 배드민턴대회 성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  
총 800여명 참가 열띤 경쟁 펼쳐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회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당초 2020년에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간 연기됐다가 3년 만에 열리게 됐다.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눠 87개 종목으로 치

러진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선수단 600여명과 정읍시 선수단 200여명 등 총 8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고현기 배드민턴협회장은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수와 가족 임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가 그동안 코로나19로 갈증을 겪던 동호인들에게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배드민턴 동호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배드민턴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학교에 배드민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산악연맹, 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종합우승’ 차지

전북산악연맹(회장 김성수)은 지난 13일 경기도 오산시 필봉산에서 개최한 생활체육의 전국제전이라 할 수 있는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15개 부문(일반부 8개, 어르신부 7개)에서 1위(12개), 2위(2개), 3위(1개)를 획득하여 일반부 종합 1위, 어르신부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만들어 내어 2000만 산악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게 하는 성적을 거뒀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에서 우승한 전북산악연맹.

김성수 단장, 조창신 감독, 김용우, 김인환 코치, 조현숙, 홍은순, 김나연 주무, 주축으로 철

저한 준비를 해온 결과로 비춰진다. 김성수 전북산악연맹은 해마다 20여 개 사업과 대회와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진행 시행해 왔으며 전문산악 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 성장하고 산악활동의 배려계층을 위한 공익적인 사회적 역할 및 산행 안전과 더 좋은 자연 환경 보호 그리고 보편적 체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모든 소임을 다할 것이며 산악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회에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기관, 단체 및 모든 분과 열정과 모범적인 모습을 다해주시는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祝 창간 14주년

장수군의의회  
JANGSU COUNTY COUNCIL

의 암 송 (천연기념물 제397호)